

동구, 홍도동 다온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대전 동구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홍도동(동구 홍도로 7)에 위치한 '다온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에 근거한 대전 시 주관 사업으로, 심야시간 약사가 상주하는 약국을 지정해 안정적인 의약품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대전 지역에는 총 5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동구에는 1개소가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다온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며, 심야 시간에도 약사가 상주해 복약 상담과 의약품 조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심야시간에도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상병수당 2억 6,800만원 누적지급 생활안정 기여

홍성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해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홍성군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시범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했고, 군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상병수당 대상은 취업자 및 자영업자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까지 다수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일용직·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급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했던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홍보를 병행하며, 군민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외국인 관광객유치 전방위적 정책가동

방한시장 확대·지역관광 수요 증가 기회…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아시아권의 유명 글로벌 여행플랫폼에서는 2025년 충북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도(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11월 말 기준 청주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자는 10만 명으로 2024년보다 4만 명 증가하는 등 충북의 인바운드 관광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충북도는 방한 시장 확대와 지역 관광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청주국제공항·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도내 관광지를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충북 방문을 유도하고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이동 편의를 개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 용두사지 철당

간 광장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C-SQUARE)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해 충북에서 생산된 우수 뷰티제품 체험, 지역 미식정보·쇼핑정보 안내, 짐 보관 서비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쇼핑바우처인 C-패스를 통해 주요 상권인 성안길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등 쇼핑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국가 및 잠재적 틱 국가를 대상으로 충북 관광홍보관을 운영하여 공격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실시하고,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패널토어를 통해 수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방한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충북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유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조만간 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20대 발급한다

내달 6일~13일까지 접수…내년 상반기까지 총 34대 단계적 공급 예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면허는 지난해 4월 수립한 2025~2029년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증차분 34대 중 1차 공급 분인 20대다. 1차 배분이 완료되면 관내 운행 중인 택시는 기존 506대에서 526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공급분은 내년 상반기 중 14대를 추가 모집, 총 34대 증차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면허 신청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다.

세종시는 무사고 운전경력 등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홍빈 교통국장은 "이번 신규면허 배분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보장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내달 1일까지 유아들에게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옛이야기를 들려줄 '제18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공개 모집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여성 어르신이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선현미담이나 전래동화 등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제1기 30명으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전국 유아교육기관 8,30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4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야기할머니는 56세~74세의 여성으로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시에는 학력·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에 합격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3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향후 5년 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르신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채봉 기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자모집

1월 30일까지 9분야 18개사업…총 5억 2,94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 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신기술 보급 시 범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1월 30일 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5억 2,940만 원 규모로 ▲축산 분야 3개 사업 ▲채소 분야 3개 사업 ▲과수 분야 3개 사업 ▲화훼 분야 1개 사업 ▲농촌자원 분야 3개 사업 ▲도시농업 분야 1개 사업 ▲청년농업인 분야 1개 사업 ▲신규농업인 분야 1개 사업 ▲농업발전기금 분야 2개 사업 등 총 9개 분야 18개 사업 18개소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거주지 및 사업 예정지가 대전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로 각 사업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 방문 접수 또는 보조금통합(e나리도움, 보랩)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별 종목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된 사업은 2월 중 사업 예정지 현지 조사와 농업신학협동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원예·도시농업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 보급과 청년·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해 사업 성과가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미용 부티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장과 대학교수, 미용 학원장 등이 참석해, K-뷰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채봉 기자

충남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 '총력'



충청남도는 내포지식산업센터 내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주요 기관 창업지원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도 전체 차원의 창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도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충남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호서대,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도내 창업 지원 핵심 7개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기관별 발표, 협력 방안 논의,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 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신규 사업과 역점 사업을 설명했으며, 도의 인공지능(AI) 산업 방향에 맞춘 창업 지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각 기관의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창업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내 창업 지원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해 우리 도가 기술 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사통팔달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